

한국산 미기록속 *Macroteleia*의 보고

(별목: 검정알벌과)

Mikhail A. Kozlov, 최준열¹

러시아과학원 동물연구소, ¹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농업해충과

과의 모든 종들이 곤충이나 거미의 알에 기생하는 분류군인 검정알벌과 (Scelionidae)는 납작먹좀벌과와 함께 후절 구조와 산란관의 작용기작에 기초하여 Proctotrupoidea에서 분리되어 Platygastroidea를 구성하며, 현재까지 전 세계에는 약 150속 3,000여종이, 우리나라에는 총 3아과에 15속 39종이 기록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표본실에 소장된 검정알벌 표본을 동정하면서 확인된 한국 미기록속 *Macroteleia*의 4종을 한국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Macroteleia elissa Kozlov & Kononova 썩기검정알벌 (신칭)

Macroteleia laevifrons Kozlov 곤지검정알벌 (신칭)

Macroteleia punctifrons Kozlov 곰보검정알벌 (신칭)

Macroteleia variegata Kozlov & Kononova 중앙검정알벌 (신칭)

*Macroteleia*의 특징을 보면; 머리는 둥근 편이고, 옆에서 보면 frons가 뚜렷하게 뒷쪽으로 각여 있다. 뒤눈은 겹눈에 거의 닿는다. 측각은 암수 모두 12마디이며, 암컷의 경우 곤봉이 확실하다. 중절은 단단한 편이며, 기껏해야 머리보다 약간 좁다. Notauli가 있고 소순판, 후흉배판, 전신복절에 돌기가 없다. 전연맥은 연문맥보다 길지만 후연맥보다는 훨씬 짧다. 후절 첫 마디에 뿔이 없다. 후절 마지막 마디는 옆쪽으로 늘려 있고 대개 신장되었다. 이로써 한국산 검정알벌로 총 3개 아과에 16속 43종이 기록된다.